



인협, 2012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가

총 160건 380만 유로 수출상담 실적 기록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개최된 2012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 한국인쇄문화관을 조성해 참가했다. 110여 개국 7000여 개사가 참가하고, 약 28만 명이 방문한 이번 도서전에서 인협은 우리나라 인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직접참가 업체 및 위탁전시 업체들의 수출상담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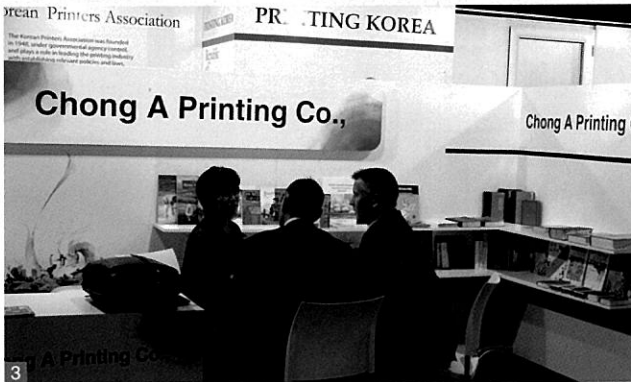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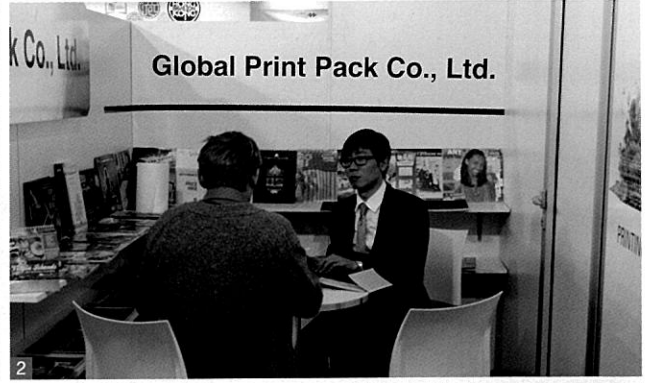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세계 각국의 도서가 전시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예술문화 공연, 작가와의 대화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열림으로써 출판 분야 최대의 국제교류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인협은 해외 출판인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출판계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국관을 조성해 참가했다. 이로써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역사성과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으며, 각국 관련 협회와의 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 인쇄물 수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신기술·디지털 관련 세미나 지속 개최

올해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SPARKS(모든 창조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디지털계획)이라는 플랫폼을 각 홀에 제공해 신기술 및 디지털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신기술 및 디지털 관계사를 위한 6가지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을 제시하고, 모든 출판과 미디어 부분을 위한 미디어 컨퍼런스와 시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일반 전시회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방문객의 유치를 독려했다. 다양한 고서전을 통해 도서전내에서 고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맛있는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요리관련 이벤트를 선보였다. 문구



1. 한국인쇄문화관 직지사연 행사 2. 글로벌프린트팩의 수출상담 모습 3. 청아문화사의 수출상담 모습 4. 아시아프린팅의 수출상담 모습

및 선물 전시관의 다양한 문구와 선물도 주목을 받았다.

인쇄 우수성 홍보-다양한 수출상담 진행

6번 홀에 33㎡ 규모로 조성된 한국인쇄문화관에서는 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인쇄문화 홍보, 영문 홍보물 배포, 직접참가 업체의 수출 상담, 위탁 전시업체의 홍보물 전시 및 수출 상담 대행 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됐다.

선명한 연두색과 흰색으로 포인트를 준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의 부스는 Printing Korea의 타이틀로 통일성을 이뤘으며, 태극 문양의 디자인을 통해 상징성을 높였다. 특히 각 참가사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 자유롭게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인쇄물 및 위탁 전시 업체를 위한 브로슈어 전시 및 수출 상담을 대행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의 후원으로 직지 체험과 고인쇄 시연행사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역사와 현황, 주요 수출업체의 명단이 포함된 영문 홍보물의 요소요소 배치 및 배포를 통해 우리나라 우수 인쇄문화의 홍보 및 인쇄 수출 증진 활동을 지원했다. 청아문화사, 글로벌프린트팩, 아시아프린팅 등 3개사는 직접참가 업체로 한국관에 상주하며 적극적인 수출상담 활동을 전개했다.

〈글로벌프린트팩〉

글로벌프린트팩은 도서, 잡지, 동화책, 학습교재, 달력을 비롯해 요리 책자, 페인팅 잡지, 만화 등 고품질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전

시했다. 1일 평균 15명, 총 75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방문객들은 인쇄가격, 납기 및 인쇄품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전시 기간 동안 30개 업체 90만 유로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청아문화사〉

청아문화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 의학 사전, 시리즈 교재 등의 서적을 전시해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1일 평균 20명, 총 100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방문객은 아동도서, 성경 등에 특히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시 기간 동안 40개 업체 120만 유로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아시아프린팅〉

아시아프린팅은 양장서적, 달력, 아동용책자 및 아트북 등을 전시했으며, 1일 평균 15명 총 75명이 방문객이 찾았다. 방문객은 아동용 책자, 아트북 인쇄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전시 기간 동안 30개 업체 80만 유로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드림인쇄가 상담트레이닝 업체로 참여해 1일 평균 10회 이상, 30만 유로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한편, 한국관에는 1일 평균 200명, 총 1000명이 방문했으며, 직접참가 업체, 상담트레이닝 참가 업체, 위탁참가 업체를 포함해 총 160건 380만 유로에 달하는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